

우리나라 婦人의 結婚年齡變動과 出産力

- I. 序 論
- △ Ⅰ. 結婚事象의 發生과 變動類型
- Ⅱ. 結婚年齡의 變動과 出産力
- ▽ Ⅲ. 有配偶婦人比率의 變動이 出産力에 미친 영향
- Ⅳ. 要約 및 結論
- Ⅴ. 政策의 提言

I. 序 論

1. 結婚年齡 — 出産力의 關聯

結婚의 人口學的 重要性은 한 人口의 增殖을 가져오는 再生産活動의 關門이라는데 있다. 즉, 結婚은 곧 再生産行爲의 可能性을 賦與하며, 또 그 頻度는 出生頻度에 直接的인 作用을 하는 동시에 一國의 配偶關係別 人口構造를 規定하는 것이다.

結婚은 基本的으로 死別, 離婚 및 別居에 의해서 再生産活動으로 부터 離脫되며, 再婚에 의해서 다시 그 機能이 回復된다.

結婚이 出産力에 作用하는 影響은 一般的으로 可妊期의 女子가 처음으로 再生産活動의 關門을 通過하는 時點에서의 年齡(結婚年齡)에서 시작하여 死別, 離婚, 別居 및 再婚 등의 複合的 關係를 보이면서 變動한다.¹⁾

이것은 婦人의 可妊年齡 上限이 特定社會 또는 特定人에 따라 多少 差異는 있으나 대체로 대부분의 婦人들이 45歲 前後에 自然不妊이 됨으로써, 結婚年齡이 再生産 活動期間(可妊期間의 結婚持續期間)을 規制하는 一次的 要因으로 作用하며, 또 特定年齡에서 發生된 結婚事象은 그동안에 解婚 또는 再婚事象에 의해서 有配偶年齡構造에 影響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婦人의 初婚年齡은(age at first marriage) 一般的으로 離婚 및 再婚의 頻도가 많지 않다는데서 중요한 出産力 規制要因의 하나가 된다. 이러한 出産力 規制要因이 되는 初婚年齡의 變動은 一般的으로 그 나라의 傳統的 價值體系 및 教育水準 등과 關聯이 크며, 最近에는 經濟的 要因과의 關聯도 적지 않은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²⁾

이와 같이 出産力은 結婚과 關聯하여 볼 때, 婦人의 初婚年齡과 可妊能力 終熄時期의 再生産 活動에 의해서 說明될 수 있다. 또 이 再生産 活動期間은 그 期間에 發生하는 男便과의 死別, 離婚, 別居 등, 夫婦의 再生産活動의 與件 내지 그 基盤에 依存되며, 이러한 與件 내지 基盤은 다시 한 人口가 속해-있는 社會·經濟·文化的 諸 要因에 의해서 影響을 받는다.

우리나라 婦人의 初婚年齡은 數十年 以來로 서서히 上昇되어 왔으며(表 1 參照), 이와 동시에 未婚率도 그동안 漸增되어 왔다.

全體 女子人口中 未婚比率을 「센서스」 및 調查年度別 橫斷面的 資料에 의해서 보면, 그것은 1960-

* 家族計劃研究院 事業統計研究室研究員

1) Yaukey, David, *Marriage Reduction and Fertility*, 1973, pp.53~80.

2) Davis K. and J. Blake. "Social Structure and Fertility: An Analytical Framework,"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IV, No.3, April, 1956, pp.214~218.

년의 29「퍼센트」에서 1974년에는 33「퍼센트」로 15年間に 4「퍼센트」點이 增加된 水準이었다.

이러한 初婚年齡 및 未婚率의 變動은 그 스스로 全 既婚婦人의 可妊期 平均 結婚持續期間을 短縮시켜 다른 直接的인 出產調節方法이 使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出產力을 크게 低下시킨 原因으로 指摘되고 있다.³⁾

한편 우리나라는 日帝下에서 近代化의 黎明을 맞이 했으며, 또 지난 30餘年間 數次의 政治·社會的 激動期를 거치면서 社會, 經濟, 文化的 諸 側面에서 많은 變化를 가져왔고, 특히 1960年以後에는 奇蹟的인 高度의 工業成長에 依存되어 都市化, 生活水準의 向上 등 社會, 經濟的 諸 變動이 急速히 進行되어 왔다.

이러한 그동안의 諸 變動들은 初婚年齡을 上昇시키는데 影響을 주어왔고, 또 이러한 現象은 1962년부터 出產抑制에 直接 作用하는 家族計劃事業이 隨伴됨으로써 出產力 低下運動을 더욱 加速化시켜 왔다.⁴⁾⁵⁾⁶⁾

社會·經濟的 變動과 結婚年齡의 上昇 및 出產力의 低下現象은 經濟開發을 서두르고 있는 대부분의 開發途上國家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出產力을 低下시키려는 諸 努力이 여러나라에서 普遍化되어 있고, 그 出產力은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全般的으로 低下傾向을 보이고 있다.

最近의 歷史的 背景이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台灣의 경우를 볼 수 있다.

「허마린」(Albert I. Hermalin)은 出產力에 미치는 影響要因으로, 女子의 勞動力參加와 結婚年齡의 變動을 強調하고 있으며, 아울러 教育水準의 向上과 都市化 등을 指摘하고 있다.⁷⁾

「휘지」⁸⁾와 「파키스탄」⁹⁾의 1974年 世界出產力調查 報告書에서도 이와 類似한 內容을 製表하여 收錄하고 있다.

近年의 出產力에 관한 實證的 研究를 비롯하여 展開된 理論 및 그 研究結果 또한 結婚事象과 出產力 및 이에 대한 社會科學的 要因間의 關係를 包括적이고 概念的으로 明示해 주고 있다.

즉, 「데이비스」(K. Davis)와 「브레이크」(J. Blake)는 出產力에 作用하는 中間變數(intermediate variables)를 一般化하여 크게 3個의 範疇로 分類하고 結婚과 관련되는 變數들을 「再生産行爲에 作用하는 變數(intercourse variables)의 範疇에 分類하였다.¹⁰⁾

「프리드만」(R. Freedman)은 「데이비스—브레이크」의 概念을 보다 폭넓은 社會學的 領域에서 觀察하여 한 社會가 가지는 自然的, 氣候的 및 政治體制的 環境, 社會, 經濟的 構造, 社會的 規範 등의 特性이 出產力에 直接的인 作用을 하는 이른바 「데이비스—브레이크」의 中間變數에 影響을 주고 있다는 事實을 그의 著書 *The Sociology of Human Fertility*¹¹⁾에서 數卷의 參考文獻과 더불어 說明하고 있다.

「요오키」(David Yaukey)는 「데이비스—브레이크」의 中間變數의 分類를 修正하여 結婚의 成立과 解婚 등의 事象이 餘他 中間變數들에 作用하는 概念圖式을 提示하고 있다.¹²⁾

이와 같이 結婚事象과 出產力 그리고 이들에 直·間接的으로 作用하는 諸 社會科學的 要因間

3) 李 柄武. “有配偶年齡構造, 妊娠中絶 및 家族計劃事業이 出產力에 미치는 影響”. 家族計劃年報, 創刊號. 1970, pp.140~143

4) 경제기획원. 1970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제 2권, 출산력(4-2), p.252.

5) 宋 建鏞, 家族計劃의 出生防止效果에 관한 研究; 1960~70年, 1973.5. pp.22~26

6) Evelyn Lapierre-Adamcyk and Thomas K. Burch. “Trends and Differentials in Age at Marriage in Korea”,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5, No.8. Aug. p.255.

7) Hermalin. Albert I. “Empirical Research in Taiwan on Factors Underlying Differences in Fertility”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5, No.10, Oct. 1974, pp.314~323.

8) Bureau of Statistics of Fiji. 1974 Fiji Fertility Survey. Dec. 1976, pp.3~97.

9) Population Planning Council of Pakistan. Pakistan Fertility Survey. 1st Report, Oct. 1976, pp. 31~109.

10) Davis K. and J. Blake, op. cit., pp.211~212.

11) Freedman, R. *The Sociology of Human Fertility*. 1975, pp.3~21.

12) Yaukey. David op. cit. pp.14~18.

의 關係는 出産力에 관한 몇 가지 國內外 文獻에서 實證的 研究를 볼 수 있고, 또 近來에 發展된 많은 學者들의 出産力 理論 및 概念化圖式에서도 이들 變數들간의 關係를 包括的으로 糾明해 주고 있다.

이러한 內容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婦人들의 結婚年齡 上昇現象은 그동안 出産調節을 위한 最近의 諸 政策의 配慮와 더불어 出産力을 低下시키는데 影響을 주었으며, 또 出産力 低下에 作用한 이 結婚年齡의 變動은 그동안의 社會·科學的 諸 要因의 變動과 關聯이 되어 있는 것으로 考慮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論文에서는 우리나라 婦人의 結婚年齡 變動 類型을 把握하고, 社會·經濟的 背景과 關聯하여 變動하는 이 結婚年齡이 어떤 關係下에서 出産力에 影響을 주고 있는지, 또 影響이 있다면 最近(1960年 以後)의 그 影響度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分析하였다.

2. 資料 및 分析方法

이 論文은 우리나라 婦人의 結婚年齡變動과 出産力간의 關係分析을 基本的인 目的으로 하며, 그 分析模型은 出産力을 從屬變數로 하고, 이에 作用하는 獨立變數를 結婚年齡의 變動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出産力에 直·間接的으로 影響을 주는 社會·經濟的인 몇 가지 指標性에 의해서 다시 이들 關係를 捕捉하였다.

여기서 結婚年齡은 初婚年齡을 의미하며, 그 變動은 「코호트」(cohort)方法에 의해서 把握되었다. 즉, 結婚의 成立과 그 變動過程을 「코호트」別 差異에 의해서 보았다.

또 이 論文에서 사용된 出産力 指標는 주로 「코호트」別 累積方法에 의한 出産水準이며, 具體的인 分析目的에 따라서는 調査時期別 橫斷面的 資料(cross-sectional data)도 利用되었다.

「코호트」出産力* 資料는 그 대부분이 1974年 韓國出産力調査 結果로 부터 測定된 것이며 橫斷面的 資料는 1960年에서 1970年 「센서스」, 1974年 出産力調査 및 既作成된 몇 가지 論文資料가 利用되었다.

「코호트」出産力 資料는 結婚年齡—出産力간의 關係를 分析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橫斷面資料는 結婚年齡의 變動傾向과 이의 出産力에 作用한 效果를 測定하는데 利用되었다.

結婚年齡과 出産力의 分析에 있어 結婚 또는 出産力指標는 대부분이 分布를 考慮하지 않은 算術平均概念에 의한 水準으로 파악되었으며 따라서 그 平均水準의 差異를 比較함에 있어 分布의 分散은 同一한 것으로 假定되었다.

그리하여 分析은 平均水準의 差異의 比較에 그치고, 그 差異에 대한 效果는 거의 무시되었다. 다만 本文 IV章에서 有配偶比率 變動이 出産力에 미친 效果를 Lee-Isbister**의 方法에 의해서 測

* 「코호트」出産力은 婦人의 出産過程에서 累積出産水準을 나타내며, 本 分析에서 사용된 「코호트」는 出生「코호트」와 結婚「코호트」였다. 前者는 出生이 일어난 時期가 同一한 婦人集團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는 調査時의 同一年齡階層이 된다. 後者는 前者와는 달리 初婚時期가 同一한 婦人集團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는 調査時點에서 初婚經過年數가 同一한 婦人集團이 된다.

** 出産力과 有配偶比率간의 關係는 다음과 같다.

$$\text{즉, ASFR} = \frac{\text{ASMFR} \cdot \text{Mi}}{\text{Mi}/\text{mi}} = \text{ASMFR} \cdot \text{mi}$$

여기서 ASFR=年齡別 出産率(bi/Fi)

ASMFR=年齡別 有配偶出産率(bi/Mi)

mi=年齡 i인 婦人의 有配偶比率(Mi/Fi)

Mi=年齡 i인 婦人의 有配偶婦人數

Fi=年齡 i인 女子人口數

bi=年齡 i인 婦人에서의 出生數

위의 式에서 年齡別出産率은 年齡別有配偶出産率이 一定한 경우에 有配偶比率(mi)의 變動에 依存되어 있음을 보인다.

定 및 分析하였을 뿐이다.

II. 結婚事象의 發生과 變動類型

1. 初婚年齡

우리나라 婦人의 初婚年齡推移를 1925년부터 보던 그것은 一貫하여 漸進的인 上昇趨勢였다.

結婚年齡을 時期的으로 區分하여 그 特徵을 보면 1941년부터 1954년까지의 統計資料가 不備하여 그 間의 變動은 알 수 없으나 1940년과 1955년의 結婚年齡을 比較하건대, 그것은 그간에 현저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 婦人의 平均 初婚年齡은 1940년의 17.7 歲에서 1955년에는 20.5 歲로 約 3 歲가 上昇된 것이다.

1955年以前의 結婚年齡은 한마디로 「早婚型」이라 特徵지을 수 있으며, 대체로 그 上昇傾向은 安定的이었다. 1955年 以後의 初婚年齡은 解放以前의 上昇幅에 比해서 계속하여 높은 水準에서 急上昇하는 現象을 보였으며 다만 1974년에 와서 輕微한 低下를 나타내고 있다.

1974년에 初婚年齡이 낮아진 것이 어느 特定要因의 作用에 의한 一時的인 衝擊現象인지에 대하여는 더 깊은 分析에서 說明이 可能할 것이나, 아롱든 最近에 우리가 느끼는 結婚年齡의 低下傾向을 勘案하여 볼 때 一時的인 特定要因에 의한 低下現象만으로는 볼 수 없을 뿐이다.

Table 1. 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 for Female by Type of Residence, 1925~1974

Year	Mean age at marriage		
	Country whole	Rural	Urban
1925	16.3	15.9	18.7
1930	16.7	16.3	19.2
1935	17.1	16.7	19.6
1940	17.7	u	u
1955	20.5	20.0	21.5
1960	21.6	21.0	23.8
1966	22.8	22.0	24.0
1970	23.3	22.5	24.4
1974	23.1	22.3	24.2

Sources: 1925~1955;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5, No. 8 (Population Council), August, 1974, p.257
1960~1970; 1960, 1966, 1970 Census (EPB, BOS) 1974; 1974 Fertility Survey (KIFP & BOS)

그러나 初婚年齡이 오랜 期間을 두고 서서히 上昇되어 온 것만은 틀림없는 事實이며, 婦人들의 이러한 初婚年齡 上昇傾向은 그동안 全體 既婚婦人들의 結婚持續期間을 短縮시켜 왔고, 이러한 短縮傾向은 地域적으로 農村보다 都市地域에서 더 현저하였다.¹³⁾

1974年 現在 우리나라 婦人의 平均 初婚年齡은 約 23 歲이었으며, 現存 既婚婦人(15歲~49歲) 중 約 90「퍼센트」가 結婚年齡 15 歲부터 24 歲에 集中되어 있는 分布를 보이고 있다.

現存 既婚婦人數의 比率은 年齡別로 25歲부터 29 歲에 上昇하여 30 歲 後半부터 急速히 減少하는

13) 家族計劃研究院. 1973年 全國 家族計劃 및 出生力調査: 綜合報告, 1974, 12. pp.19~21.

傾向을 보이며, 婦人の 現年齡別 結婚年齡의 分布는 지난 30 餘年間 結婚年齡의 上昇傾向을 엿볼 수 있다(表 2 參照).

Table 2. Percentage Distribution of All Ever-Married Women According to Age at First Marriage by Current Age, 1974 Fertility Survey

Current age	Age at first marriage					Total(N)
	-15	15~19	20~25	20~29	30*	
15~19	—	100.0	—	—	—	100.0 (55)
20~24	0.1	38.3	61.6	—	—	100.0 (554)
25~29	0.1	19.6	67.5	12.8	—	100.0(1171)
30~34	0.6	26.0	57.1	15.7	0.6	100.0(1078)
35~39	0.7	45.6	44.5	6.9	0.3	100.0(1022)
40~44	5.7	64.6	26.4	2.9	0.6	100.0 (867)
45~49	9.2	79.0	10.1	1.3	0.4	100.0 (673)
All ages	2.4	43.0	46.5	7.8	0.3	100.0(5420)

社會·經濟的인 背景變數에 따라서 結婚年齡의 差異를 보면, 婦人の 教育水準이 높고, 이들 男便의 職業이 專門職, 事務職 또는 販賣職에 從事하며 또 婚前에 오랫동안 일에 從事했던 婦人에서 結婚年齡이 높았다. 또 婦人の 成長地가 農村인 婦人보다는 都市婦人들의 初婚年齡이 높았으며,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宗教보다는 基督教 夫婦에서 結婚年齡이 높았다(1974 韓國出產力調査資料).

이러한 結婚年齡의 社會·經濟的 指標性에 따른 差異는 그동안 우리나라 結婚年齡의 變動이 社會·經濟的 諸與件의 變動에 의해서 規制되고 動機化되어 왔다는 것을 示唆하는 一面이다. 事實

Table 3. Percent Distribution of Employed Female Population Aged 15~49 by Occupation, 1966 Census and 1970 Census

	1966	1970
Prof. & managerial	2.1	2.5
Clerical	1.7	3.4
Sales and services	22.2	21.7
Agricultural	58.9	55.8
Others	15.1	16.6
Total (N)	100.0 (2,116,870)	100.0 (2,928,193)

우리나라의 女子人口 특히 15歲부터 49歲의 可妊年齡層 女子人口중 經濟活動參加比率은 1966年の 32「퍼센트」에서 1970년에는 40「퍼센트」로 증가되었으며, 그 構造는 專門職, 事務職 등 으로의 增大傾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女性人力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産業에 參與하여 왔다는 것을 證明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表 3 參照).

2. 結婚狀態의 安定性

結婚狀態는 늘 解體되어 再生産行爲가 中止될 可能性을 지니며, 이러한 解婚狀態는 다시 結婚에 의해서 再生産行爲를 回復할 可能性을 지닌다.

즉, 婦人の 結婚은 男便과의 死別, 離婚에 의해서 解體되며 이는 別居와 더불어 再生産行爲의 中止를 뜻한다. 이러한 狀態는 다시 再婚 또는 再結合에 의해서 再生産活動을 再演할 可能性을 지

는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결혼의 안정성은 해혼과 재혼회수 및 재혼률에 의해서 그指標성을 찾을 수 있으며, 이 결혼상태의 안정성 정도는 出産力水準을 規制하는 要因이 된다.

우리나라의全體 既婚婦人(15歲~49歲) 중 約 10「퍼센트」가 現在 解婚狀態(first marriage dissolved)에 있으며 이 중 3分の 2가 男便의 死亡에 의한 것이다(1974年 調査資料). 解婚狀態에 있는 婦人中 結婚經過年數가 짧은 婦人에서는 離婚 또는 別居의 比重이 높았고, 結婚經過年數가 20年 以上인 婦人에서는 死亡에 의한 比重이 높았다. 특히 그 經過年數가 25年이 넘는 婦人들의 경우 男便의 死亡에 의해서 解婚狀態에 있는 婦人의 比重은 매우 높아 20「퍼센트」를 上廻하고 있다.

또 解婚狀態에 있는 既婚婦人中 再婚을 經驗한 婦人의 比重이 40「퍼센트」水準이며, 이水準은 結婚經過年數가 4年以內의 短期인 婦人에서 19「퍼센트」로 낮은 것을 除外하면, 結婚期間이 5年 以上인 婦人들에서는 再婚率이 37「퍼센트」에서 46「퍼센트」의 範圍에서 平均 40「퍼센트」를 中心으로 變動하고 있다.

Table 4. Salient Features Relating to Marital Stability by Years since First Marriage, 1974 Fertility Survey

Years since first marriage	Percentage of all ever-married women reporting dissolution of first marriage		Percentage of those experiencing dissolution of first marriage who had remarried	Percentage of All ever-married women who were currently married at time of survey
	Death of husband	Divorce of separation		
0~4	.3	1.0	18.8	98.9
5~9	1.0	1.7	37.0	98.3
10~14	2.0	4.2	44.0	96.4
15~19	5.4	4.4	46.3	94.3
20~24	9.9	6.2	41.3	89.5
25~29	21.2	8.1	41.3	81.3
30+	24.3	6.6	37.4	77.0
Total	6.5	3.9	40.3	93.2

「취지언」에 居住하는 「인디언」은 우리나라 婦人들과 거의 類似한 結婚의 安定성을 보였다. 그러나 「취지언」과는 큰 差異가 있다.

「취지언」의 경우 解婚狀態에 있는 婦人이 19「퍼센트」나 되고 있으며, 이 중 離婚 또는 別居에 의한 比重이 15「퍼센트」로서 매우 높다. 또 이들 解婚狀態의 婦人中 70「퍼센트」가 再婚의 經驗을 갖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比較하여 30「퍼센트」나 높은水準에 있는 것이다.

「취지언」과 比較하여 우리나라의 結婚이 絶對적으로 安定的인 것은 再嫁를 否定的으로 보는 우리나라의 傳統的 價値觀과 관련되며,¹⁴⁾ 따라서 離婚 및 再婚의 頻度가 적다는데서 婦人의 初婚年齡은 우리나라의 出産力에의 作用變數로 그 重要性이 더욱 強調된다 하겠다.

3. 妊娠危險의 露出狀態

妊娠危險의 露出狀態란 有配偶婦人中 再生産行爲에 의해서 언제라도 妊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狀態를 의미하며, 現在 妊娠중인 婦人을 포함하여 妊娠露出狀態에 있는 婦人의 比率는 出産의 潜在力으로서, 出産力에 作用하는 直接的인 要因이 된다.

14) 尹鍾周. 人口學. 1973, p.188.

이러한 現象은 現年齡別 妊娠露出狀態와 마찬가지로 結婚한지 오래된 婦人일수록 解婚과 自然不妊이 占하는 比重이 커지기 때문인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婦人들의 妊娠露出狀態를 社會·經濟的 背景을 說明變數로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1974年 調査資料).

우선 都市·農村別로 妊娠露出率은 큰 差異를 발견할 수 없으나, 妊娠率은 邑地域에서 12「퍼센트」로 높았고, 市部地域에서는 不妊手術(避妊目的)의 比率이 6「퍼센트」로 높았으며, 自然不妊의 比率은 11「퍼센트」로 낮았다.

다음 婦人의 教育水準別로는 中學校를 中退 또는 卒業한 婦人중 妊娠率이 16「퍼센트」로 높은 것을 除外하면 두드러진 現象은 볼 수 없으며, 또 男便이 農業에 從事하는 婦人에서 自然不妊이 17「퍼센트」로 높은 것을 제외하면, 職業別로 특별한 差異는 발견할 수 없다.

끝으로 宗教別 妊娠露出狀態를 보면, 宗教를 갖지 않은 婦人중의 妊娠露出率(妊娠포함)이 79「퍼센트」로 가장 높으며, 現妊娠率은 宗教를 갖지 않은 婦人과 基督教 夫婦에서 모두 11「퍼센트」水準으로 높았다. 그리고 儒教 등의 其他 宗教를 갖는 夫婦에서 解婚率이 13「퍼센트」로 높았고 自然不妊은 佛教信徒에서 16「퍼센트」, 其他 宗教에서 11「퍼센트」로 높은 水準이었다.

Ⅲ. 結婚年齡의 變動과 出產力

1. 初婚年齡과 出產力

結婚은 特定社會의 有配偶關係別 人口構造를 規定하며 그 頻度는 前述한 바 再生産行爲에 의해서 出產力에 影響을 준다. 특히 婦人의 初婚은 解婚의 頻도가 一般的으로 적고 또 그 年齡은 婦

Table 6. Mean Number of Children Ever Born by Marital Status and Years since First Marriage, 1974 Fertility Survey

	Age of women at first marriage												
	All ever married women						All current married women						
	-15	15~19	20~24	25~29	30+	Total	-15	15~19	20~24	25~29	30+	Total	
Years since first marriage													
0~4	—	1.1	1.1	1.1	.6	1.1	—	1.1	1.1	1.1	.6	1.1	
5~9	3.0	2.6	2.8	2.6	1.3	2.7	3.0	2.7	2.8	2.5	1.3	2.7	
10~14	3.0	3.9	3.7	3.0	4.0	3.7	3.0	4.0	3.7	3.1	3.0	3.8	
15~19	4.4	4.6	4.2	3.5	5.0	4.4	4.4	4.7	4.3	3.5	5.0	4.5	
20~24	6.0	5.3	4.5	4.0	—	5.1	6.0	5.5	4.6	4.0	—	5.3	
25~29	5.7	5.6	4.2	—	—	5.5	5.9	5.9	4.5	—	—	5.8	
30+	6.7	6.2	—	—	—	6.3	7.2	6.6	—	—	—	6.7	
Current age													
15~10	—	.5	—	—	—	.5	—	.5	—	—	—	.5	
20~24	3.0	1.5	.7	—	—	1.0	3.0	1.5	.7	—	—	1.0	
25~29	2.0	3.0	2.0	1.0	—	2.0	2.0	3.0	2.0	1.0	—	2.0	
30~34	4.9	4.2	3.4	2.1	.4	3.4	5.0	4.2	3.4	2.1	.4	3.4	
35~39	6.0	4.9	4.1	3.0	1.0	4.4	6.0	5.0	4.2	3.1	1.0	4.5	
40~44	5.7	5.5	4.3	3.5	2.3	5.1	5.9	5.8	4.4	3.4	2.3	5.3	
45~49	6.9	5.9	4.3	3.7	2.5	5.8	7.5	6.2	4.6	3.7	2.5	6.1	
Total	6.2	4.6	2.8	2.0	1.4	3.6	6.5	5.6	2.8	2.0	1.4	3.6	

人的 可妊年齡 上限線이 一定할 때 出產行爲를 規制하는 基本的인 與件이 된다. 따라서 初婚年齡은 특히 出產調節方法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社會에서 出產力에 作用하는 중요한 要因이 된다.

1974年 全 既婚婦人(15歲~49歲)의 平均既出生兒數(number of children ever born)는 3.6名이고 이중 平均生存兒數는 3.2名이었다.

婦人의 平均既出生兒數는 初婚年齡 20歲를 前後하여 뚜렷한 差異를 보이고 있고, 또 그것은 婦人의 現年齡이 높고 結婚經過年數가 긴 婦人일수록 높은 水準을 보였다. 또 同一「코호트」婦人이라 하더라도 結婚年齡이 낮은 婦人에서 出產水準이 높았다.

여기서 初婚年齡이 낮은 婦人일수록 出產水準이 結婚經過年數別로 높은 것은 다음 두가지 側面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 하나는 結婚年齡이 낮은 婦人은 結婚經過年數가 길고, 이에 따라 再生產活動期間이 길어짐으로써 出產水準이 높아진 結果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結婚年齡이 낮은 婦人일수록 그 대부분이 現年齡이 높고 結婚經過年數도 긴 婦人들이기 때문에 初婚年齡이 낮은 많은 婦人들이 過去 우리나라의 傳統的 思考方式에 깊이 젖어 있어 出產水準이 높은 것으로 把握되는 내용이다.

前者는 出產力에 대한 結婚年齡變動의 效果이고 後者는 社會變動의 影響을 보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婦人들의 平均 初婚年齡은 前述한 바 점진적인 上昇傾向을 보여 왔고 이에 따라서 再生產活動期間도 同時에 단축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初婚年齡의 上昇은 子女에 대한 價値觀의 變化와 더불어 그 間에 社會經濟的 영향에 의해서 傳統的 社會價値觀으로 부터 오랫동안 脫皮하여 온 結果인 것이다.¹⁵⁾

이렇게 볼 때 初婚年齡과 出產力은 그동안 社會科學的 要因에 의해서 동시에 영향을 받았고, 또 社會的 變動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變動된 初婚年齡은 다시 出產力 變動에 作用하였다.

初婚年齡이 變動함에 따라 出產力이 變動되었다는 것은 「코호트」別로 初婚年齡이 낮은 婦人일수록 出產水準이 높고, 反對로 初婚年齡이 높은 婦人일수록 그 水準이 낮은 傾向性에서 보는 所以이다.

즉, 初婚으로 부터의 經過年數가 길고 또 初婚年齡이 낮은 婦人일수록 出產水準도 높아지는 趨勢는 社會·經濟的 變動이 出產力에 직접 작용하는 영향과는 別途로 初婚年齡의 變動이 出產力에 作用하고 있다는 一面을 示唆한다. 또, 同一結婚「코호트」婦人이라 하더라도 初婚年齡이 높아짐에 따라 出產水準이 낮아지는 傾向은 結婚經過年數에 관계없이 初婚年齡의 上昇은 다른 社會的 要因의 영향을 받아 출산력을 低下시켰음을 보이는 것이다.

2. 結婚狀態의 安定성과 出產力

우리나라 婦人의 解婚比率(proportion of dissolution of first marriage), 특히 離婚과 別居의 比率이 높지 않고 따라서 結婚狀態는 前述한 대로 比較的 安定的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出產水準은 結婚年齡別로 全 既婚婦人(15歲~49歲)과 有配偶婦人(15歲~49歲)¹⁶⁾ 間에 전혀 그 差異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婦人의 現年齡이 높아질 수록 또는 結婚經過年數가 오래된 婦人일수록 男便의 死亡 또는 婦人의 自然不妊率이 높아져 出產水準에 多少 差異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즉, 結婚年齡이 25歲 以上인 婦人들은 25歲 以下의 婦人들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再生產活動期

15) 高 甲錫, Smith. 1968年度 韓國婦人의 出產力 및 家族計劃 實態調查報告. 國立家族計劃研究所. 1970, 12. p. 36.

16) 人口學的 分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結婚狀態의 分類體系는 女子人口를 未婚, 有配偶, 死別, 離婚, 別居의 5個 범주로 區分하는데, 여기서 既婚婦人이란 未婚을 제외한 有配偶, 死別, 離婚, 別居의 結婚 經驗婦人을 總稱하며, 有配偶婦人이란 既婚婦人중 現在 兩性間에 性的 結合生活을 영위하고 있는 夫婦로 離婚, 死別, 別居, 婦人을 제외한 婦人을 의미한다.

間의 制約을 받아 出產水準에 큰 差異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結婚年齡이 24歲 以下로 낮은 婦人들 의 경우에는, 結婚經過年數가 15年 以上이거나 또는 現年齡이 35歲 以上인 婦人들에서 는 약간씩 出產水準에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前述한 바 結婚年齡이 낮은 婦人들 의 대부분이 結婚經過年數가 오래되었고 또 現年齡이 높은 婦人들로 看做되며, 따라서 初婚年齡 이 낮은 婦人들 의 出產水準이 높은 自然不妊率과 높은 解婚率에 의해서 全既婚婦人과 有配偶婦 人間에 差異가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다.

3. 첫 出生間隔(初婚後)

初婚으로 부터 첫 出生까지의 間隔은 初婚年齡의 變動과 더불어 婦人의 全再生產 活動期間을 통한 累積出產力에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 婦人의 첫 出生間隔은 平均 21個月(結婚經過年數가 적어도 5年 以上된 婦人중)이며, 이 間隔은 初婚年齡이 낮고 結婚經過年數가 오래된 婦人일 수록 길었다.

Table 7. Mean Length First Marriage to First Birth, within Categories of Age at First Marriage and Years since First Marriage, For All Women Married at Least Five Years, 1974 Fertility Survey

Age at marriage	Years since first marriage			Total
	5~9	10~19	20+	
~15	12.0	23.0	33.2	32.1
15~17	19.7	26.0	29.0	28.0
18~19	19.4	21.2	23.5	21.8
20~21	16.6	18.5	22.0	18.4
22~24	14.4	16.8	14.7	15.5
25~29	16.3	15.9	30.0	16.5
30+	—	—	—	—
Total	16.5	19.5	26.5	21.1

이러한 現象은 結婚年齡이 낮은 대부분의 婦人들은 結婚經過年數가 대체로 오래된 婦人들이 라는 것을 고려하면, 過去로 부터 오랫동안 우리나라 婦人들의 初婚年齡이 점차로 上昇되어 오기 는 하였으나, 한편으로 첫 出生間隔은 初婚年齡의 上昇과 동시에 短縮되어 온 것이며, 結果的으 로 解婚의 比率이 그동안 一定하였다고 하면, 初婚年齡 上昇에 따른 出產力 低下效果¹⁷⁾는 첫 出生間隔의 短縮影響에 의해서 그동안 相殺되어 온 것으로 간주된다.

즉, 有配偶出產率은 結婚年齡 上昇에 의한 再生產活動期間의 短縮과는 反對方向으로 作用하는 첫 出生間隔의 단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結婚年齡 上昇의 出產力 低下效果는 有配偶年 齡構造의 變動 效果에 追加하여, 첫 出生間隔의 變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 出生間隔과 出產力의 관계는 더 깊은 分析의 段階로 미루고 다만 여기서는 첫 出生間隔의 短縮은 初婚年齡의 上昇效果를 相殺할 것이라는 문제를 提起할 뿐이다.

4. 初婚後 5年間の 出產力

初婚後 5年間の 出產力은 初婚後 첫 出生間隔과 관련이 되며, 初婚 直後의 出產水準을 보는

17) Lee-Isbister 는 特定年度의 年齡別 有配偶出產力이 一定할 때 年齡別 有配偶婦人比率의 變動에 따른 特定 年度까지의 出產力 變動效果를 測定한 바 있다(李 炳武, 前揭論文, p.114)

指標이다. 初婚後 5年間の 出產水準은, 이것을 初婚年齡別로 婦人의 初婚經過年數에 따라 比較함으로써 過去로 부터의 初婚年齡變動에 따른 初婚 直後の 時系列的 出產水準의 差異를 파악할 수 있다.

Table 8. Mean Number of Children Born before or within First Five Years of First Marriage by Age at First Marriage and Years since First Marriage, 1974 Fertility Survey

Years since first marriage	Age at first marriage					Total
	-15	15~19	20~24	25~29	30+	
5~9	2.0	1.8	2.0	2.1	1.0	2.0
10~19	1.2	1.6	1.8	1.9	2.5	1.7
20+	.9	1.3	1.5	1.4	—	1.3
All	.9	1.4	1.8	2.0	1.9	1.6

1974年 出產力調査 結果에 의하면, 初婚後 첫 五年間の 平均既出生兒數는 1.6名(初婚經過年數가 적어도 5年 以上된 婦人중)이었으며, 이것은 現 既婚婦人(15歲~49歲)의 全結婚期間을 통한 平均 既出生兒數 3.6名의 44「퍼센트」가 된다.

初婚後 5年間の 出產水準은 初婚經過年數가 길고 初婚年齡이 낮은 婦人일 수록 낮은 傾向을 보였다.

즉, 結婚期間이 5年에서 9年인 婦人의 初婚後 5年間 平均既出生兒數는 2.0名, 10年에서 19年인 婦人의 그것은 1.7名, 그리고 20年 以上の 婦人의 그것은 1.3名으로 減少되어 낮았다. 또 結婚經過年數가 10年未滿인 婦人의 初婚後 5年間 出產水準은 結婚年齡別로 그 差異의 傾向에 있어 一貫性이 없으나, 結婚經過年數가 10年 以上인 婦人의 경우에는 結婚年齡이 낮은 婦人일 수록 出產水準이 낮고 반대로 結婚年齡이 높은 婦人일 수록 그 水準은 높았다.

이러한 現象은, 그동안 우리나라 婦人들의 初婚年齡은 上昇되어 왔고, 따라서 全體 累積出產水準은 初婚年齡 上昇에 의해서 낮아진다. 한편으로 初婚時 첫 出生間隔은 동시에 단축되어 왔기 때문에 初婚後 5年間の 出產力은 높아진다는 事實을 실제 出產水準의 比較에 의해서 立證하는 내용이다.

5. 社會·經濟的 變動과 出產力

地域間 差異出產力

出產의 本質이 生物學的 現象이나 人間은 社會的 動物로써 出產은 社會, 經濟, 文化的 與件에 의해서 規制되고 動機化된 行爲의 結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 社會內에서 個人이 가지는 居住環境, 生活水準 등의 差異는 個人의 出產力에 差異를 가져올 수 있다.¹⁸⁾

産業革命 以後 가장 중요한 社會變動중의 하나는 都市化 現象이며 이는 동시에 現代人口의 出產力을 低下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一般적으로 出產力은 都市化의 程度에 따라 그 差異를 보여주고 있으며 農村出產力은 都市보다 높다.¹⁹⁾

우리나라는 前述한대로, 수십년間 社會的 變動과 더불어 都市化 傾向이 일어났고, 특히 1960年 以後에는 急速한 工業化와 동시에 그 現象이 더욱 顕著하였으며 이러한 都市化 傾向은 우리나라의 出產力을 低下시키는데 크게 作用하였다.²⁰⁾

18) 尹鍾周. 前揭書, p.201.

19) 尹鍾周. 上揭書, p.202.

20) 文顯相. 差別出產力에 관한 研究 (1968年 全國出產力調査 資料에 依함). 家族計劃研究院, 1972. 3. p.27.

1974年 出産力調査 結果에 의해서 地域形態別 出産力 差異를 보면, 平均既出生兒數가 面部의 4.3名, 邑部가 3.8名, 그리고 市部가 3.0名으로 都市化 程度에 따라서 出産水準이 낮아지는 差異를 보이고 있으며, 그 差異의 傾向은 結婚經過年數가 긴 婦人일 수록 더욱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地域間 出産力の 差異는 그동안 急速하게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都市化 現象을 고려할 때 結果的으로 우리나라 全體 出産力을 低下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내용이며, 初

Table 9. Mean Number of Children Ever Born to All Ever-Married Women by Various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Years since First Marriage, 1974 Fertility Survey

	Years since first marriage							Total
	0~4	5~9	10~14	15~19	20~24	25~29	30+	
Type of place of residence								
Village	1.1	2.9	4.1	5.0	5.7	6.2	6.7	4.3
Town	1.2	2.7	4.2	4.3	5.7	5.7	6.5	3.8
City	1.1	2.6	3.4	3.9	4.4	4.6	5.6	3.0
Education								
No schooling	1.5	2.9	4.1	5.0	5.6	5.7	6.6	5.3
Primary	1.2	2.8	3.9	4.5	5.1	5.5	5.8	3.6
Middle	1.0	2.7	3.2	3.7	4.4	5.3	5.7	2.2
High	1.0	2.4	3.0	3.4	4.3	4.4	4.5	2.4
College or higher	1.2	2.3	2.7	3.1	4.1	2.8	5.0	2.3
Husband's occupation								
Never worked	.8	2.4	2.5	4.3	2.8	3.0	6.1	2.3
Prof. & managerial	1.0	2.6	3.3	3.7	4.5	4.5	5.2	2.9
Clerical	1.1	2.8	3.2	3.9	4.5	4.7	5.5	2.8
Sales & service	1.1	2.6	3.6	3.7	4.8	4.6	5.4	3.1
Agricultural	1.1	3.0	4.1	5.1	5.8	6.2	6.8	4.6
Skilled manual	1.1	2.6	3.5	4.2	4.6	4.9	5.7	3.0
Unskilled manual	1.3	2.6	3.8	4.6	5.5	5.2	6.0	3.8
Religion								
None	1.1	2.7	3.8	4.5	5.3	5.7	6.5	3.6
Buddhist	1.1	2.7	3.5	4.2	4.9	5.1	6.0	3.7
Protestant	1.1	3.6	3.6	4.4	4.7	5.2	5.9	3.2
Catholic	1.1	2.6	2.9	4.2	4.6	5.1	6.5	3.2
Other	1.6	2.9	3.6	4.3	5.8	5.6	5.4	4.2
Total	1.1	2.7	3.7	4.4	5.1	5.5	6.3	3.6

婚經過年數에 따른 地域間 出産力の 差異는 現在보다 過去로 거슬러 올라 갈수록 都市化의 出産力 低下 影響度가 더욱 컸다는 것을 말해준다.

教育水準 및 職業間 差異出産力

婦人의 出産水準은 이들 男便의 職業, 所屬産業 및 從事上의 地位 등에 따라 差異를 보이며 이는 男便의 教育水準과 관련이 큰 婦人의 教育水準과도 直接的인 關係를 갖고 作用한다. 즉 農·非農間(職業間)의 差別出産力은 아직도 現代社會에서 널리 볼 수 있는 一般의 現象이며 이는 都市

一農村間 및 教育水準別 差別出産力の 다른 한 表現이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

1974年 우리나라 婦人の 教育水準別 出産力の 差異를 보면, 初婚經過年數의 長·短을 막론하고 教育水準이 높을 수록 出産水準이 낮았다. 또, 이들 婦人の 男便이 農業에 종사하는 階層의 出産力이 현저히 높았고, 專門職, 事務職, 販賣職 등에 종사하는 階層의 出産力이 比較的 낮았다.

이렇게 出産力은 이의 社會·經濟的 變動要因으로 볼 수 있는 前記의 居住地域, 教育水準 및 職業과 相互 多樣한 關聯下에서 그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그 差異는 出産力이 그동안 社會·經濟的 變動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宗教別 差異出産力

宗教別 出産力은 1974年 調査結果에서 結婚經過年數에 관계없이 宗教를 갖지 않은 婦인과 佛敎 信者, 기타 儒敎 등의 夫婦에서 높았고, 基督敎 夫婦에서 그 水準이 낮았다. 이러한 現象은 過去로 부터 傳來하는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宗教가 舊來의 社會價値觀과 깊은 關聯을 갖고 作用하는 것이다.

宗教의 差異는 特定國에 따라 出産力에 많은 差異를 보여 왔으며 또 많은 調査研究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近來에 와서 宗教間의 差異出産力은 이들의 居住環境 및 社會經濟的 階層의 差異에 따라 同一 宗教內에서도 많은 出産力 差異를 나타내어 宗教變數만으로는 差別出産力을 分析하는 것이 意味가 적다고 한다.²¹⁾ 즉 이것은 美國의 경우 「카톨릭」 夫婦에서 出産力이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카톨릭」보다 佛敎 등의 傳統的 宗教에서 出産力이 높은 例에서 본다.

6. 最近 5年間의 出産力

最近 5年間의 累積出生兒數는 現妊娠率과 더불어 現實의 出産力 指標로 볼 수 있다.

Table 10. Indices of Current Marital Fertility by Current Age and Age at First Marriage, 1974 Fertility Survey.

Current age	Age at first marriage					Total
	-15	15~19	20~24	25~29	30+	
Mean number of children born in past 5 years to women who have been continuously in the married state for the past 5 years						
15~19	—	—	—	—	—	—
20~24	2.9	1.9	—	—	—	1.9
25~29	1.8	1.6	1.9	—	—	1.8
30~34	.7	1.1	1.4	1.6	—	1.3
35~39	.7	.7	.8	.9	2.0	.7
40~44	.6	.4	.3	.3	.4	.4
45~49	.2	.1	.1	—	—	.1
All ages	.4	.7	1.1	1.2	.6	.9
The percentage of currently married women reporting a current pregnancy						
15~19	—	29.1	—	—	—	29.1
20~24	—	23.8	30.6	—	—	27.9
25~29	50.0	12.5	20.7	26.7	—	19.9
30~34	33.3	7.1	7.6	14.0	42.9	8.9
35~39	—	3.0	3.5	4.5	—	3.3
40~44	4.7	1.3	.5	—	—	1.2
45~49	2.0	—	—	—	—	.2
All ages	5.5	6.3	13.5	15.9	16.7	10.6

21) Clyde V. Kiser. Group Differences in Urban Fertility. 1942. pp.38~40.

1974年 調査日을 基準하여 最近 5年間 有配偶婦人의 平均既出生兒數는 0.9名이었고 現妊娠率은 有配偶婦人의 10.6퍼센트였다.

最近 5年間의 出産力 및 妊娠率은 共히 現年齡이 낮고, 또는 初婚年齡이 높았던 婦人일 수록 높은 水準을 나타냈으며, 그 水準은 30歲 以下의 婦人에서 특히 높았다.

이러한 現象은 結婚經過年數가 비교적 짧은 젊은 年齡層 婦人의 높은 出産意欲이 反映된 結果라 하겠다.

한편 全既婚婦人의 最近 5年間 出産水準은 都市보다 農村에서, 基督教보다는 佛敎, 儒敎 등의 우리나라 傳統的 宗教에서 높았으며 또 教育水準이 中學校以下의 婦人에서 높았다. 그러나 現年

Table 11. Mean Number of Children Born in Past Years to Women Who Have Been Continuously in Married State for the Past 5 Years by Current Age and Background Variables, 1974 Fertility Survey

	Current age							Total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Type of place of residence								
Village	—	1.9	1.9	1.4	.9	.5	.2	1.0
Town	—	2.0	1.8	1.4	.7	.4	.3	.9
City	—	1.8	1.7	1.3	.5	.2	.1	.8
Education								
No schooling	—	2.0	1.8	1.4	.9	.5	.2	.7
Primary	—	1.9	1.8	1.4	.7	.3	.1	1.0
Middle	—	1.9	1.7	1.3	.6	.1	.1	1.2
High	—	1.5	1.6	1.2	.5	.2	—	.8
College or higher	—	—	2.1	1.2	.6	.1	.1	.8
Husband's occupation								
Never worked	—	—	1.8	1.3	.6	.1	—	.8
Prof. & managerial	—	—	1.8	1.3	.6	.1	—	.8
Clerical	—	—	1.7	1.4	.6	.2	.1	.9
Sales & service	—	1.5	1.7	1.2	.5	.2	.1	.8
Agricultural	—	1.9	1.9	1.5	1.0	.5	.2	.9
Skilled manual	—	2.0	1.6	1.3	.6	.3	.1	1.0
Unskilled manual	—	2.3	2.0	1.2	.8	.3	—	.9
Religion								
None	—	1.8	1.8	1.4	.8	.4	.2	1.0
Buddhist	—	2.3	1.7	1.3	.6	.3	.1	.8
Protestant	—	1.5	2.0	1.3	.6	.2	—	.9
Catholic	—	—	1.5	1.2	.6	.3	.1	.7
Other	—	2.0	1.7	1.1	.8	.4	—	.7
Total	—	1.9	1.8	1.3	.7	.4	.1	.9

齡이 20歲에서 24歲의 婦人에서는 邑部地域에서 2.0名으로 가장 높았고, 教育水準은 높을 수록 점차로 낮아지는 傾向이며, 社會的 地位가 낮은 階層에서 높았다.

IV. 有配偶年齡構造變動이 出産力에 미친 影響

有配偶年齡構造의 變動은 初婚年齡의 變動과 이의 安定性에 관련된다. 즉, 有配偶年齡分布는 初婚年齡에 의해서 一次的으로 規制되며 또 이것은 男便과 死別, 離婚에 의한 初婚의 解體, 또는 再婚事象 등에 의해서 다시 變動한다. 이러한 有配偶年齡分布는 婦人의 可妊年齡 上限과 관련하여 年齡別 有配偶出産力에 作用하는 根本的인 要因이 된다.

有配偶婦人 比率의 變動曲線은 [圖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1960년에 비하여 1970年 以後의 有配偶比率는 婦人年齡 30歲 以下에서 全般的으로 낮은 水準이었다. 그러나 1974年의 有配偶比率는 1970年의 그것과 比較하여 모든 年齡層에서 거의 同一한 水準으로 유사한 형태의 曲線을 취하고 있으나, 年齡層에 따라서 多小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1. Proportion of Currently Married Women of Total Female Population, 1960~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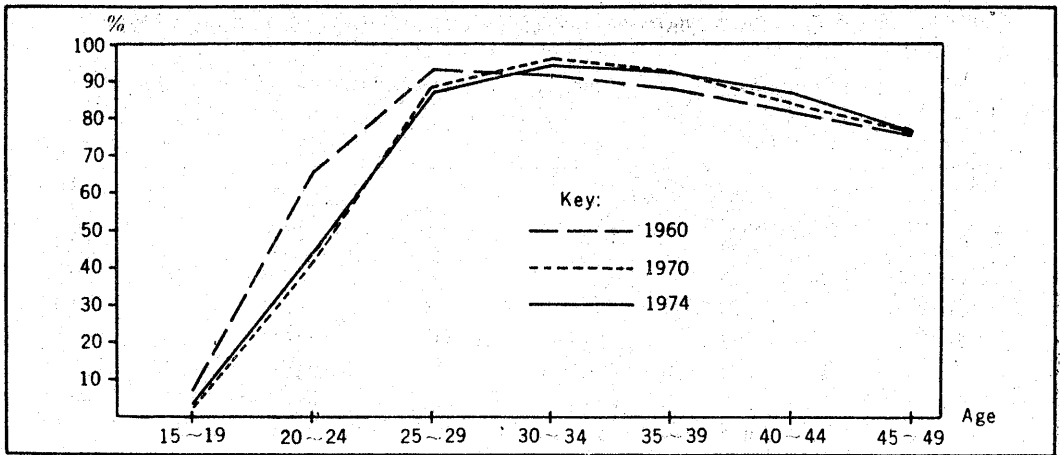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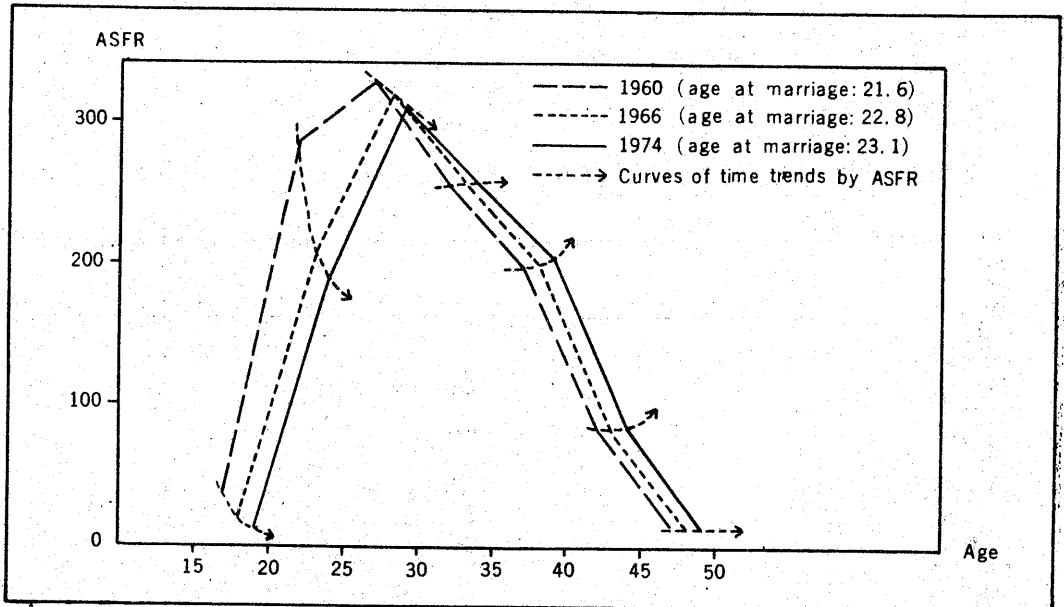


Figure 2. Age Specific Fertility Rates from Changing of Age at First Marriage, 1960~1974



즉, 25歲에서 35歲사이에서는 有配偶比率이 1970年에서 높으나, 餘他 年齡層에서는 1974年의 有配偶比率이 약간씩 높았다.

한편 年齡別 出生率은 1960年 以後 크게 低下되었고, 특히 24歲 以下 및 35歲 以上の 年齡層에서 出生率의 低下趨勢가 急速하였다. 그리고 有配偶比率과 直接的으로 관련이 되는 有配偶出生率은 비교적 높은 年齡層에서 그 低下速度가 빨랐다.

이렇게 有配偶比率, 年齡別出生率 및 年齡別 有配偶出生率 變動의 相互關係에 의해서 有配偶年齡分布와 出生力의 年齡階層別 變動關係는 스스로 파악된다. 즉, 그것은 그동안 젊은 年齡層의 出生力이 有配偶比率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有配偶比率이 變動됨에 의해서 出生力이 變動된 結果를 Lee-Isbister의 方法에 의해서 직접 측정해 보면 <表 12> 및 [圖 2]와 같다.

즉, 出生力은 有配偶比率의 變動에 의해서 1960년부터 1974년까지 約 10「퍼센트」의 效果를 나타냈으며 그것은 주로 25歲 以下の 젊은 年齡層에서 크게 低下된 結果였다. 그러나 1970年에서 1974年 期間에는 有配偶比率의 變動에 의한 出生率이 오히려 輕微하나마 上昇된 數值를 보이고 있는데

Table 12. Fertility Rates of Women and of Married Women by Age, 1950~1974

Age	1960	1966	1970	1974	Percent change (1960~74)
Age specific fertility rates					
15~19	.037	.012	.008	.010	-72.9
20~24	.283	.198	.196	.154	-45.6
25~29	.330	.317	.325	.272	-17.6
30~34	.257	.235	.196	.160	-37.7
35~39	.196	.150	.128	.072	-63.3
40~44	.080	.069	.051	.028	-65.0
45~49	.014	.013	.013	.004	-71.4
Age specific marital fertility rates					
15~19	.525	.318	.282	.313	-40.4
20~24	.437	.416	.463	.353	-19.2
25~29	.354	.353	.368	.311	-12.2
30~34	.280	.251	.027	.170	-39.3
35~39	.223	.168	.139	.079	-64.6
40~44	.098	.085	.060	.032	-67.4
45~49	.019	.018	.017	.005	-73.7

Sources: 1960~1970: 1960, 1966, 1970 Census (BOS).

1974: 1974 Korean National Fertility Survey (KIFP).

Table 13. Fertility Rates from Changing of Proportion of Currently Married Women Aged 15~49, 1960~1974

Age	1960	1966	1970	1974	Percent change from 1960		
					1966	1970	1974
15~19	.037	.020	.015	.017	-45.9	-59.5	-54.1
20~24	.283	.208	.185	.191	-26.5	-34.6	-32.5
25~29	.330	.318	.313	.310	-3.6	-5.2	-6.1
30~34	.257	.263	.265	.263	2.3	3.1	2.3
35~39	.196	.199	.205	.204	1.5	4.6	4.1
40~44	.080	.081	.083	.085	1.3	3.8	6.3
45~49	.014	.014	.015	.015	—	7.1	7.1
TFR	5.985	5.516	5.405	5.421	-7.8	-9.7	-9.5

이는 同期間의 初婚年齡과 관련하여 有配偶比率이 높아진 내용을 反映한다.

그러나 有配偶比率의 變動에 의한 出産力 變動이 全的으로 初婚年齡의 上昇效果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婦人의 結婚年齡이 그동안 上昇되어 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첫 出生間隔은 단축되어 왔다. 이 첫 出生間隔은 出産과 關聯하여 實質的인 結婚年齡의 低下效果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V. 要約 및 結論

우리나라 婦人의 初婚年齡은 解放 以後 早婚型으로 부더 漸進的인 上昇趨勢를 보였고, 동시에 未婚率도 漸增되어 왔다. 結婚狀態는 比較的 安定的이었고 그 變動은 男便과의 死別에 크게 依存되었다. 따라서 有配偶年齡構造는 많은 部分이 初婚年齡과 死別婦人의 年齡分布에 따라서 變動되어 왔다. 主로 男便과의 死別에만 依存하여 대체로 安定되어 있는 우리나라 婦人의 結婚狀態는 出産潜在力으로서의 結婚露出率을 比較的 높은 水準에서 維持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初婚年齡의 變動은 그동안 婦人의 再生産 活動期間을 短縮시켜 出産力低下에 영향을 주 어 왔고, 또 그 變動은 再生産 活動期間과는 關係없이 出産力을 低下시키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社會·經濟的 要因, 즉 出産力 低下에 關係서 初婚年齡의 上昇과 同一 方向으로 運動하는 社會·經濟的 要因으로 把握되었다.

反面에 初婚年齡의 上昇과 逆相關的 系列을 갖고 첫 出生間隔이 短縮되어 왔다. 첫 出生間隔의 단축은 再生産 活動期間의 단축에 의한 出産力 低下運動을 그동안 相殺시켜 온 要因임이 새로이 밝혀졌다.

이렇게 初婚年齡과 出産力 變動 그리고 社會·經濟的 要因 및 기타 要因 등은 多樣한 相互關聯을 갖고 變動한다. 그 具體的인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初婚年齡은 1925年 以後 漸進的인 上昇趨勢로 概觀되며, 다만 1974年의 婦人의 初婚年齡은 23.1歲로써 1970年의 그것에 比하여 輕微한 下落現象을 보였을 뿐이다. 그리고 初婚年齡은 解放前에는 早婚型이 安定된 上昇趨勢를 특징으로 하며, 解放後의 그것은 解放前에 비하여 높은 水準의 急上昇 現象을 나타냈다.

初婚年齡의 上昇傾向은 그동안 婦人들의 平均再生産 活動期間을 동시에 단축시켜 왔고, 이 短縮傾向은 地域的으로 農村보다 都市地域에서 더 현저하였다.

또 初婚年齡은 婦人의 教育水準이 높고 男便의 職業이 專門職, 事務職, 販賣職에 종사하며 婚前에 오랫동안 職業을 가졌던 婦人에서 높았다. 또 婦人의 成長期가 都市인 婦人에서 初婚年齡이 높았고 우리나라 傳統的 宗教보다는 基督教 婦人에서 높았다. 이러한 社會·經濟的 指標에 따른 初婚年齡의 差異는 그동안의 初婚年齡의 變動이 社會·經濟的 諸與件의 變動에 의해서 규제되고 動機化되어 왔다는 것을 示唆한다.

初婚이 解體된 狀態에 있는 婦人의 比率은 全既婚婦人(15歲~49歲) 中 約 10「퍼센트」가 되며 이中 3分の 2가 死別이었다. 이 解婚比率은 結婚經過年數가 짧은 婦人에서 離婚 및 別居의 比率이 높았고, 結婚經過年數가 20年 以上된 婦人에서는 死別의 比率이 높았다.

初婚이 解體된 婦人中 再婚을 經驗한 婦人의 比率이 40「퍼센트」水準에 있으며, 이것은 「취지」 人들의 70「퍼센트」와 比較하여 매우 낮은 水準이다. 이러한 點에서 우리나라 婦人의 初婚은 比較的 安定的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初婚年齡은 出産力에 영향을 주는 變數로 그 重要性이 強調된다.

1974年 現在 全既婚婦人의 66「퍼센트」가 妊娠危險에 露出되어 있고, 現妊娠比率은 9.9「퍼센트」였다. 나머지 24「퍼센트」의 婦人은 死別, 離婚, 別居, 不妊手術, 自然不妊의 婦人이었다. 妊娠露

出率은 젊은 年齡層婦人에서 높은 水準을 보였고, 現妊娠比率 역시 35歲 以下の 婦人에서 현격하게 높았다.

妊娠露出率은 地域別로 差異가 없으나 現妊娠率은 邑地域에서 12「퍼센트」로 높았고, 또 中學校를 中退 또는 卒業한 婦人의 妊娠率이 16「퍼센트」로 높았다. 宗教別 妊娠露出率은 宗教를 갖지 않은 婦人이 79「퍼센트」로 높고, 現妊娠率은 基督教婦人과 宗教를 갖지 않은 婦人에서 共히 11「퍼센트」로 높았다.

1974年 全既婚婦人(15歲~49歲)의 平均既出生兒數(number of children ever born)는 3.6名이 있으며, 이것은 婦人의 現年齡이 높고 結婚經過年數(years since first marriage)가 긴 婦人일 수록 높은 水準이었다. 또 同一「코호트」 婦人이라 하더라도 結婚年齡이 낮은 婦人에서 出產水準이 높았다. 즉, 初婚年齡의 上昇은 再生産活動期間을 단축시켜 그 스스로 出產力 低下運動에 參與하여 왔으며, 또 初婚年齡의 變動은 結婚經過年數에 關係없이도 出產力을 低下시키는 또 다른 意味의 社會的 屬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出產水準은 地域別로 都市性이 강한 地域일 수록 낮았고, 이 差異의 幅은 結婚經過年數가 긴 婦人에서 더 현격하였다. 그리고 初婚經過年數의 長短을 막론하고 婦人의 教育水準이 높은 階層에서 또는 이들 婦人의 男便이 專門職, 事務職 또는 販賣職에 종사하는 階層의 出產力이 比較的 낮았다. 한편 宗教別로는 우리나라 傳統의 宗教에서 出產力이 높았다. 이러한 出產力의 差異는 그 동안의 都市化, 工業化, 教育水準의 向上 등이 크게 出產力 低下에 影響을 주어왔음을 意味한다.

우리나라 婦人의 結婚狀態는 比較적 安定的이며 따라서 既婚婦人과 有配偶婦人間에 出產力의 差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높은 年齡層의 婦인이거나 또는 結婚經過年數가 오래된 婦人에서는 婦人의 自然不妊率과 解婚比率이 높아 多少 出產水準에 差異를 보였다.

初婚으로 부터 첫 出生까지의 間隔은 平均 21個月이며 (結婚經過年數가 5年 以上이 된 婦人중에서) 이것은 結婚經過年數가 길고 初婚年齡이 낮은 婦人에서 길었다. 즉, 동일한 結婚「코호트」 婦人에서도 初婚年齡이 낮은 婦人에서 첫 出生間隔이 긴 傾向을 보였다.

初婚後 첫 5年間の 平均既出生兒數는 1.6名이었으며, 이것은 結婚經過年數가 오래되고 初婚年齡이 낮은 婦人일수록 낮은 傾向을 보였다.

最近 5年間の 既出生兒數는 0.9名이었고, 이것은 現年齡이 낮고 初婚年齡이 높았던 婦人에서 높았다. 또, 이것은 都市보다 農村에서, 基督教보다는 佛敎, 儒敎 등의 傳統의 宗教에서 높고, 教育水準이 中學校 以下の 婦人에서 높았다.

1960年에서 1974年 間的 有配偶比率 變動이 그간의 出產力低下에 미친 效果는 約 10「퍼센트」로 推定되며, 이것은 主로 25歲 以下の 젊은 年齡層 婦人에서 크게 低下된 效果가 反映된 것이다.

VI. 政策的 提言

1. 우리나라 婦人의 初婚年齡 變動은 出產力에 作用하는 重要한 變數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婦人의 初婚이 結婚經過年數가 오래됨에 따라 男便과의 死別에 의해서 自然 解體되는 것을 제외하면 離婚 또는 再婚의 比率이 比較的 낮아, 結婚狀態가 安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初婚年齡이 낮아지면 이는 곧 婦人의 再生産 活動期間을 길게하여 婦人의 平生累積出產力을 增大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婦人의 初婚年齡은 本文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漸進的 上昇傾向을 보여 왔고, 이 初婚年齡의 上昇은 出產力을 低下시키는 데 크게 寄與하여 왔다.

2. 그러나 앞으로 初婚年齡의 出產力 低下效果는 期待難이다. 解放以前 부터 계속하여 漸進的 上昇趨勢를 보이던 우리나라 婦人의 初婚年齡은 最近에 와서 輕微한 低下現象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初婚年齡은 出產力을 低下시키는 要因으로 考慮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初婚後 첫 出生間隔의 短縮傾向은 우리나라 婦人들의 子女數 또는 斷産時期 등에 대한 認識이 뚜렷하게 되지 않는 限, 그것은 出産力 低下運動을 더욱 沮止시킬 것이 明白하다.

3. 또, 工業化 및 都市化 내지 이들의 相關變數들에 대한 出産力 低下效果는 점차 遞減될 展望이다. 1960年 以後 急速하게 進行되어 온 우리나라의 工業化 및 都市化의 現象 내지 이들 相關變數들의 變動은 出産에 直接 作用하는 結婚年齡, 避妊, 人工妊娠中絶 등에 영향을 주어 間接적인 出産力 低下要因으로 크게 指目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의 出産力에 미치는 影響度는 現在보다는 過去로 거슬러 올라 갈 수록 컸던 것으로 分析되었는데 이러한 現象은 앞으로 계속되어 그들의 出産力 低下에 미치는 영향도가 더욱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

4. 平均 出生兒數가 2名이 되는 婦人의 年齡은 約 30歲가 된다. 즉, 現既婚婦人(15歲~49歲)은 初婚後 約 6~7年間에 平均 2名의 正常出生兒를 갖는다. 婦人의 初婚年齡을 平均 23歲로 볼 때 平均 2名의 出生兒를 갖는 婦人의 平均年齡은 約 30歲가 되는 것이다.

5. 따라서 30歲 未滿의 婦人에게 重點적으로 家族計劃에 관한 啓蒙, 教育 및 避妊普及活動이 強化되어야 한다.

全既婚婦人(15歲~49歲) 중, 妊娠露出婦人은 76퍼센트(現妊娠 9.9% 包含)이며 現妊娠率은 30歲 未滿에서 매우 높았다. 또, 最近 5年間の 出産力을 보아도 30歲 以下の 結婚期間이 짧은 젊은 年齡層婦人에서 매우 높았다.

이렇게 出産水準이 높은 젊은 年齡層 婦人들에 대하여 30歲 以內에 斷産하도록 啓蒙, 教育하고 이들에 대하여 避妊普及 活動이 重點적으로 強化되어야 만 人口增加抑制計劃은 成功的으로 達成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ge of Women at Marriage and Fertility in Korea

Young Hoon Lee*

Korean women's age at first marriage has been gradually rising from the prevailing premature marriage type since the emancipation from Japan. At the same time, the rates of non-marriage has been rapidly increased.

Marriage status was comparatively stable, and its change is largely based on the death of the women's husband. So most part of age structure of currently married women was changed by the mobility of age at first marriage and the age distribution of widow. Being stable because it was primarily rested on the death of women's husband, the Korean women's marital status makes the exposure rate as a potential fertility at a relatively high level.

This change of age at first marriage has been influenced on by lowering of fertility by shortening women's reproductive period, and regardless of reproductive period, the change was analyzed to be the socio-economic factor which functions toward the same direction as the increase of age at first marriage concerning the shortening of the fertility.

On the contrary, interval from first marriage to first birth has been diminished in reverse relation to the rising of age at first marriage. Shortening of interval from first marriage to first birth newly turned out to be a factor which affected to the fertility declining drive by the shortening of reproductive period.

Age at first marriage, fertility and the socio-economical factor have been changed like this manner with various interrelationship. Further details are summarized as following;

1. Age at first marriage has been gradually rising since 1925, but that of women of the year 1974 was 23.1 which shows lighter declining than that of 1970. Age at first marriage had been stabilized and characterized by premature marriage type about twenty years shortly before emancipation from Japan, while age at first marriage after emancipation shows rapid rising trends to a higher level than the former.
2. The rising trends of age at first marriage has been shortening average reproductive period of women, and also this shortening trends is more noticeable in urban area rather than in rural area.

Besides, age at first marriage is shown to be higher in case of educated women, and women who had once got a job before marriage as well as whose husband are engaging in professional, clerical and salesmen. Women residing at metropolitan area and christian women have

* Researcher, KIFP

higher ages at first marriage than those of women having traditional religion. The difference age at first marriage resting up on such socio-economic index is suggesting that the change of age at first marriage has been regulated and motivated by the shift of socio-economic conditions.

3. The rate of dissolution of the first marriage is shown to be about 10 percent of total ever-married women, aged 15~49, two-thirds of them were widows. The rate of divorce and separation turned out to be high in case of women who have short period from first marriage and the widowed rate is also high in case of women who have been 20 years since first marriage.

4. Among the women whose first marriage were dissolved, the rate of remarriage is at the level of 40 percent, which shows far lower level when compared with that of Fijian's rate of 70 percent.

In this respect, it might safely be said that Korean women's first marriages are relatively stable, so that age at first marriage should be emphasized as a variable to give impacts on fertility of Korean women.

5. 66percent of total ever married women of the year 1974 are exposed to be in pregnancy risk, and the current pregnancy rate was 9.9 percent. The rest 24 percent belonged to divorced, separated, sterilized and infecund women. Exposure rate is shown to be high in case of young-aged women, and the current pregnancy rate is remarkably high in women aged more than 35.

6. Even though the exposure rate is not so different according to type of place of residence but the current pregnancy rate is as high as 12 percent in Eup area. And the rates of women who graduated or dropped out from middle school are as high as 16 percent. Meanwhile, women who don't have any religion get high percentage amounting to 79 percent of exposure rate, and the current pregnancy rate is roughly 11 percent in case of christian women and women without religion.

7. Mean number of children ever born of women ever married in 1974 (aged 15~49) is 3.6, which shows that the older women's age and women's years since first marriage reach, the higher its level becomes. Even though women belong to the same cohort, women of low marriage age are in high fertility level. In other words, rising trend of age at first marriage makes reproductive period shortened to participate in the fertility declining drive, and the mobility of age at first marriage implies another meaning of social function which can lessen the fertility regardless of the years since first marriage.

8. Fertility proved to be lessen in area where urbanism is strong and the gap becomes transparent in case of women who passed long years since first marriage. And regardless of length of years since first marriage, the fertility rate of women, who were highly educated and whose husbands are engaging in professional, clerical and salesmen, are relatively low.

Meanwhile, fertility rate of women who have Korean traditional religion are high. This difference of fertility between the two implies that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improvement of education level have influenced in lessening fertility rate.

9. Marital status of Korean women is comparatively stable, so the difference of fertility level between ever married women and currently married women is not clear at all. But in case of elderly women or women who married many years ago, the infecundity rate and dissolution rate are both high, showing differences in fertility more or less.
10. Average 21 months is the interval from first marriage to first birth (out of women who have lived five years since first marriage), which seems to be long in case of the women who married many years ago, and the women who first married at her younger age. In other words, even in the same marriage cohort women, women who married at young age are apt to have long first birth interval.
11. Mean number of live births in first 5 years of marriage are 1.6, which shows that this number become lower with the length of the women's years since first marriage as well as with age at first marriage.
12. Mean number of live births in past 5 years is shown to be 0.9. Judging from this, it follows that the rate is high when women are young and married young.
Especially, the rate is higher in rural than urban, in Christian women than traditional religion such as Buddhism and Confuciousism, and in women whose levels of education are less than middle school.
13. The effect on the lowering of fertility rate, resulting from changes of the rate of currently married women during 1960~74, is estimated to be 10 percent. This reflects that young women's influenc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their ages were less than 25.